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국仰望
민중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교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용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영적 부흥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취시리라”(엡 5:14)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517년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온 땅 열방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2)

제3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하박국 3:2)

영적 부흥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어느 누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며 오직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거룩한 은총이 교회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잠 21:21)

1.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진실은 참으로 찾기 힘들고, 교인들은 유행처럼 종교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 택하심을 입은 성결함과 거룩함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십자가 보혈이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 각성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요일 1:9)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면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시 11:4, 33:18~19) 이제 우리들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요 15:18~19)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3:22~23)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은 주님과 교제의 교제가 없는 데에서 시작된다. (시 103:2~5)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예배는 마음에 통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 탄식과 애통함으로 자신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벤전 2:25; 눅 15:20)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오, 주여! 당신의 일을 내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시 51:11~12)

2.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해 보자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의 참 백성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다. “오, 주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주의 종들을 도우소서”(골 2:8,18) 비록 아름다운 말로, 훌륭한 말로 유창하게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정한 설교자, 복음 전파자가 참으로 필요한 세상이다. (골 2:20~23) 왜냐하면 진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고후 4:3~4)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귀히 여기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차게 된다. (고후 2:15~16)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존경받을 만한 곳으로 보이지 시작할 때엔 이미 교회는 변질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요 15:19, 14:17) 교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버려온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날이 올 때까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고 울면서 호소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이제 세 것을 위하여 애쓰며 울며 부르짖지 말자! 이미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생명의 힘을 넣어 주시기를 간구하자. (요 15:4,7,8) “생명을 되시는 예수님! 끈고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5차 학습 및 세례식이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오후 3시 갈릴릴)

다음 주일(11월 4일), 제7차 성찬식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다음 주일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 14:6)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고전 11:24)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고전 11:26)으로 거듭나는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11월 교회 일정

4일(주)	제7차 성찬식(1~5부 예배 시)	16일(금)	충현 찬양의 밤(금요찬양회 시)
7일(수)	정기당회(4:30~2부 예배 후)	17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오후 2시, 남전도회)
11일(주)	2008년 제3차 CMTC 훈련2(찬양예배 후)	18일(주)	추수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2~3부 예배 시)
14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부 예배 후, 여전도회)	24일(토)	2008년 제3차 CMTC 직무훈련(오전 9시)
		25일(주)	교구총회(4부 예배 후)

*일지자 명단 제40대 정로·제20대 안수집사·제48대 권사 명단이 본지 7면에 있습니다.

LORD'S SUPPER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Romans 10:9)*

As you come to the Lord's Supper you have to separate your mind from the world, and take today's short but very powerful Bible verse quite seriously. If you accept it, then it is your blessing, if not, then it is your problem. This special time is not an earthly celebration filled with expense and culture, but rather a holy observance full of grace and faith. Concern and respect are necessary as your presence is before the Almighty God. In this circumstance, if you have been rightly affected by Him, you are conscious of the tender fear of doing wrong and the honest desire to be instructed.

At Jesus' last supper, our first supper, He prophesied about His upcoming death. He confessed to His disciples that the bread He was holding represented His body, which was for them, and the cup in His hand symbolized the new covenant in His blood. Now, as we take the bread and cup, Jesus has already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Although you did not witness this firsthand, you must believe it,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v. 9) It is only when your heart really believes this truth that you are saved, which is what the Lord's Supper is all about. It is your duty to remember. The disciples only saw one side, but now you see two sides. The disciples could only believe what Jesus was saying by faith. We have the advantage of hearing God's word before and after the cross, yet so many do not have faith as the disciples. How can you come to the Lord's Table without such faith? Please get serious about this matter. If you are going to partake in the Lord's Supper, then you have to confess to Jesus: "thank you for dying for me and forgiving my sins, thank you for resurrecting for my future, thank you for ascending into heaven and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o help me live now, and thank you for promising to come back and take me home with you forever."

The fundamental meaning of the Lord's Supper becomes clearer when you read the record of its institution in 1 Corinthians 11:23~34 with Matthew 26:17~30, Mark 14:12~25, and Luke 22:7~38. These combined passages

reveal that our blessed Savior made the Lord's Table o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his holy sacrament shows the benefit of Christ's mediation to those who are in the covenant of grace. The bread and cup are seen, given, and received according to Jesus Christ's appointment. Inward grace is the communication by the Holy Spirit and according to God's sovereign pleasure of such faith. Comfort and spiritual nourishment are in keeping with the reception of Christ—He was slain for our sin. The visible action of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shows forth His death and believers engage in it as obeying His dying injunction: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4~25) Th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seal of God's promise. He is our mediator, and through His Holy Spirit we have communion with God.

The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s performed plainly, without elaborate celebration. Unless you understand its greatness, you will fail to receive the spiritual elements of feeding on the Lord's body and blood. The Lord's Supper concerns atonement, which needs to be deeply graven on the tablet of your mind and heart.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the eternal Son of God, coequal with the Father, took upon Himself our human nature with all its infirmities, yet without sin. In other words, the Word became Flesh. (Jn. 1:14) Two natures joined together in one person who is Christ the Mediator. The Lord Jesus, under the Law, perfectly fulfilled it, obeyed its precepts and exhausted its penalty. He suffered great humiliation, and grievous agonies of body—He was crucified. He died and was laid in a tomb. By perfect sacrifice of Himself He fully satisfied divine justice and purchased reconciliation and eternal glory for all those whom the Father had given to Him.

My dear friend, the entire benefit of Christ's redemption is offered to you in the gospel and even more vividly in this sacrament. Your entitlement to His bread and cup become sure when you believe on the Lord. The Lord's Supper is an absolute blessing, so please come today with nothing but faith. Amen. 

다음을 주일 설교

주의 만찬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9)



김성필 목사

오늘 주의 만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쫓지만 매우 힘 있는 오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흥청망청하는 세상의 축제와는 달리 은총과 믿음으로 가득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깊은 관심과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식사, 곧 첫 번째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고 있는 떡이 그들을 위하는 자신의 몸이며, 잔은 자신의 피를 상징함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하는 지금,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9절) 정말로 이 진리를 믿을 때에만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 말씀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기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았지만, 여러분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의 삶을 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라

주의 만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1:23~34, 마태복음 26:17~30, 마가복음 14:12~25, 누가복음 22:7~38에 나와 있는 주의 만찬이 제정된 성경의 기록에 대해 읽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 구절들은 우리의 축복이신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은 은총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보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대로 떡과 잔이 나뉘어집니다. 성령을 통한 교제와 그러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야말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받게 되는 내적 은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위로와 영적 회복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시각적인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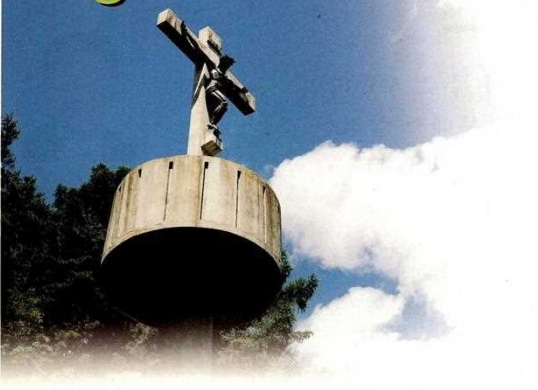
대속의 은총을 깊이 새겨라

주의 만찬은 화려한 축하 예식 없이 소박하게 행해집니다.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의 몸과 피를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속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때가 차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제외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닌 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요 1:14) 두 개의 본질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 아래에서 주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행하였고, 그 명령에 복종하셨으며, 그 형벌을 모두 도맡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수치와 육신에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해 화목과 영원한 영광을 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찬식에는 그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확실해집니다. 주의 만찬은 다른 것들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10. 24.)

상 (빌립보서 3:12~14)



'상'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에 관심이 많다. 상을 통해서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참 신자의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며 우리가 갈망해야 할 '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바울의 과거와 상급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난 바울의 '상'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비교하여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2~13) 다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받는 '상'을 간절히 원했다. 이 '상'은 세상이 주는 '상'이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내가 팔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5~6) 바울은 율법으로 무효할 정도로 완전한 신장이었다. 신분이나 학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 바울은 상급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넣기니라"(행 8:1,3)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라고 했지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였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큰 상급을 기대하였다. 마치 운사, 자기 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멘동산을 회복하려는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결국 바울의 상급은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써 얻은 상급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와 상급이었다.

바울은 상을 위하여 나아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보혈로 거듭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잊으려 한다. 자신이 가지고 이론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상'을 위하여 나아간다. 이 '상'은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는 '상'이 아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빌 3:13)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대를 향해 나아간다. 율법과 전통 그리고 문화와 상황이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찌니라"(히 6:1~2) 자신의 실력을 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보혈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데로 부패에 돌아 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순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체 있는 모양이나 오직 욕세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골 2:20~23) 세상을 좇는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제한적인 '시공간'에서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절대로 자신이 가진 것과 공로가 커져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커져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상'을 위하여 나아갔다.

계속해서 쫓대를 향하여

과거와는 달리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쫓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다. 이 길에는 분명히 표시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쫓대를 향하여 바울이 나아간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길이였다.(롬 8:28~29) 바울은 쫓대를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따라 나아갔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도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야 할 '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시는 '상'이여야 한다.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처럼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받는 '상'을 기대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부름의 상, 쫓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비천한 말로유에 누워 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라.(요 1:14)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삶의 결론은 이 땅에서의 만사행동이 아니다. 참 신자에게 있어 삶의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찬 544장)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엡 6:12) 생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겉으로 본분을 망각하면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우리는 길일을 알면서도 행지 못함은 성령의 사명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24교구는 용인시 전체를 한 교구로 249세대, 727명의 일꾼이 9개 지역,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다니홀에서 교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감싸달라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무장로 7명, 안수집사 19명, 권사 62명을 중심으로 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6개 지역 팀이 선교에 참여하였으며 20여 명은 타 부서와 연합하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를 중시하여 교회 주변 전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많은 일꾼들이 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24교구

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는 대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부인과 복음 순종하는 일에 육신이 연약함과 의지가 약하며 죄성이 있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일을 행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로 교구에 편입된 젊은이들을 흡수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심방하고 있으며, 젊은 교·대·청년 성도들이 교회와 교구 식구들과 자연스런 교제를 나누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 포천에 있는 군부대로 심방도 합니다. 이는 한 영혼을 향한 사명이 없었던 불가늠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타락시절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24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전학래교무(24교구장)

무익한 종의 고백

영성 훈련을 시작으로 선교가 준비되었다. 첫 훈련 때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했다. "선교지에 가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까지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던 나에게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주변에서 나를 시험하는 말들도 간혹 들렸다.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훈련을 마치고 파송예배 때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셨다. "선교지에 가서는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만을 심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라."

자정이 넘어 선교지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는지 정말 감사가 넘쳤다. 사역 첫날부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하며 영혼들을 만났다. 선교는 처음이 아니지만 참으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던 위임목사님께서 수요일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정말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셨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희들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에 동참시키시어 사역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길 기도하며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한다.

김세환(집사, 16교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선교지로 오기 전에 아프리카나에서 파람핀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좁아수선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들은 차질 없이 선교지에 도착하였다. 우기라 날씨의 생각보다 덥지는 않았다. 숙소를 정한 후 잠시 마을을 정찰하였다. 사람들은 비교적 온순해서 접근하기가 쉬웠다.

선교 3일째 되는 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린 소년을 만났다. 곁에 있던 소년의 어머니가 무엇인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였다.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하고 물으니, 그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전도 문장을 쪽 읽어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네 믿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소년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뒤 영접기도를 하게 했다.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조를 짜서 주로 축회 전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일일이 읽어 주다 보니 목이 아프고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기도 했지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았다. 집집마다 친절하게 우리들을 반겨주는 그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선교지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사랑하시나 보다. 추수할 것은 아니나 일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사역을 마치고 이곳에서 만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전하고 가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성자(집사, 22교구)

진흙탕에 빠진 이유

성령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었다. 언니에게 전하는 복음을 옆에서 열심히 들던 아이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자 눈빛이 점점 심각해졌다. 아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영접기도를 하였다. 꼭 끌어 안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찬양도 함께 불렀다. 그 아이는 복음을 영접했던 첫 번째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우리들이 밭에서 담배를 수확하던 사람들을 부르자 아가씨 한 명이 우리에게로 왔다. 대하생이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영접기도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겠다며 자기의 주소를 적어 주었다.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비가 와서 질퍽하고 험한 길을 갈 때 차가 빠지고 시동이 꺼졌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리서 계획이 없던 동네 위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곳 사람들 대부분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갈 때에 마당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각각 한 사람씩 말아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모두 밝은 얼굴로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였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숙부, 동생대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이! 이 가족을 구원하시라고 우리 차를 진흙탕에 빠지게 하셨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성욱(집사, 14교구)

놀라움의 연속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놀라웠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강력한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대단했다.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던 사역 현장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을 눈물로 전할 때 단단한 그들의 마음은 열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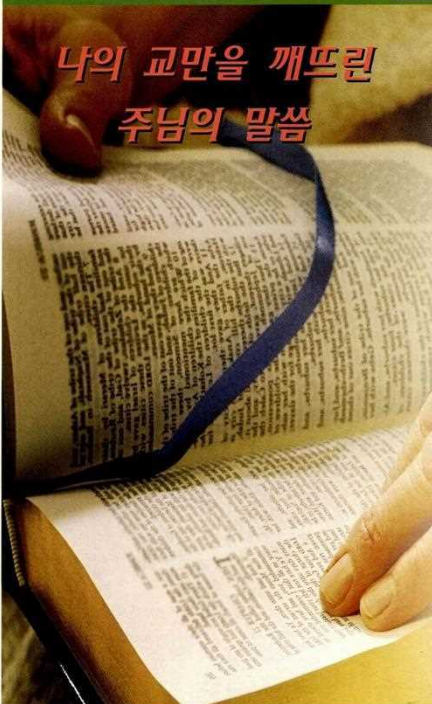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현지의 언어보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함께 하셨다. 성령님은 역사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했다.

장성길(집사, 2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30일(화) - 11월 7일(수)	교구간사	임연수
10월 30일(화) - 11월 7일(수)	24·7·8교구 연합	현한교

나의 교만을 깨뜨린 주님의 말씀



"로마서 암송을 통해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암송은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담장의 유인이 되는 시간을 더 좋아했던 나에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하였다. 로마서 2장 암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마음은 교만하였다. '말씀 한 장쯤이야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암송을 미루었다. "나중에, 나중에..." 그러다 다른 친구들과 암송을 맞춰 보기로 한 화요일이 다가왔다. 그제서야 나는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당장 급한 암기가 되었다. 나는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없었다.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허락지 않으셨다. 아무리 외우려 해도 한 절도 외울 수가 없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더욱 외울 수 없었다. "사람의 외도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나는 나의 결치레를 더욱 중시했고, 판단부터 앞세웠으니..."

처음 암송을 시작하는 나의 입에서는 "암송을 통해 받은 은혜를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말 뿐이었다. 나의 입에서는 육신의 할례인 나의 결치레가 중요했고, 하나님께 받은 칭찬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받은 칭찬을 기대했다. 겉으로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으로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의 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과 더 더러웠다. 오히려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나에게 로마서 말씀은 죄 가운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로마서 2장은 내 죄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 죄 값은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말하여 주셨다. 나는 말씀 암기가 아니라 암송이 되자마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나의 죄를 놓고 하루 종일 울며 회개하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주님이 주시는 진화 말씀을 허락하셨다. 기도밖에 없었다. 나에선 회개의 기도밖에 없었고 주님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셨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되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른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내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에 나는 한 걸음씩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길 소망한다. 로마서 암송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한다.

최현희(대학부)

십자가와 자기부인이 있는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내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나로서는 매주일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는 일이 참으로 부담스러웠다. 주일 설교 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줄 몰랐다. 그냥 시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만큼 어리석고 연약하게 믿을 생활을 하였다. 말씀의 은혜로 점차 믿음이 자라난 했지만, 집에서 먼 흥원교회까지 가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늘 마음속으로 불평했고, 어머니만 허락하시면 가까운 교회를 섬기려 했기에 지금까지 내가 흥원교회에 다니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어 성장시켜 주셨다. 구역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신앙 친구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늘 절한 물고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다. 또 전도회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나의 가장 큰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도 나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흥원교회에 첫 발을 딛은 지도 벌써 30년이 가까이 온다. 세상에 속했던 내가 믿음의 시어머니를 만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고 고백했던 뜻에게, 임하셨던 주님이 내게도 계심이 감사하다. 사람들은 대개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묻거나 "그렇게 멀리서 오시니 믿음에 참 좋으시네요."라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더 달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먼 길을 오가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기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물론 나도 때때로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지리가 먼 것이 불평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핑계 삼기도 한다. 그러나 "손에 쥘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2)는 말씀으로 나의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신다. 내 믿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믿음에 자기부인이 있는가? 늘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지금도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문헌(목사나, 17교구)

사랑의 기도 사랑의 섬김

지금의 구역 식구들과 만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989년에 부모님께서 고향인 인천으로 이사하신 뒤로 어머니를 통해 구역 식구들 이야기를 간간히 전해 들곤 하였습니니다. 아버님이 5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혼자 계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구역예배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여름에는 대수롭지 않은 병이 있으나 수없이 잘못된 어머니마저 결국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뒤 저는 어머니가 계신 구역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에 과수라 생각했던 제가 2년 전부터는 전적으로 구역을 돌보게 되면서 주님의 손길을 더욱 느끼며 구역 식구들과 이웃 사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일꾼 삼아 주셨기에 순종을 염두에 두면서도 구역을 위해 전심을 쏟지 못하고 기도도 부족하여 늘 죄송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훈련을 비롯해 구구찬양이나 구역찬양 등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진심한 마음으로 작정기도를 하면 나의 열려와와 달리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맞으셨던 재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였던 것처럼 우리 구역은 서로의 회로예약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나누는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일을 그가 원하시는 때에 그가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정확히 행하신다는 말씀을 믿기에 제에게 주어진 사랑도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길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예언예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역은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김경순(집사, 21교구)

임직자 명단

제40대 장로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김철환	16	319	김연태	10	89-87	김종홍	9	79-435
장철환	15	89-928	정대동	4	95-594	이세영	6	1310
이성섭	17	2396	장철규	21	83-274	이보신	2	88-53
이상해	13	86-449	김성호	5	84-230	조중민	8	86-383

(좌에서 우로 연행순)

제20대 안수집사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김 광	3	79-230	안병택	16	94-1111	정달영	22	79-443
성대열	22	95-246	김영춘	17	82-134	김영연	5	82-290
배완웅	20	4470	김현근	6	82-69	김재윤	24	79-345
곽상조	8	93-651	조성수	14	80-747	오동철	13	93-1188
송문식	10	92-632	이영식	21	85-931	김동휘	11	83-112
함경무	18	86-635	변인식	6	84-1231	안연식	18	91-944
노수식	5	92-1245	김일생	20	90-970	정종현	23	94-1359
김건식	1	91-224	최동삼	8	87-256	김 준	8	93-1302
송영상	6	87-742	이상배	13	91-179	여영호	24	89-690
신명환	14	91-529	유승렬	19	83-421	정인옥	3	98-757
남중호	17	91-476	김영로	4	96-208	박성진	11	97-281
박노익	23	96-303	김봉화	16	95-607	류태준	17	92-247

(좌에서 우로 연행순)

제48대 권사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강국희	23	2145	구명숙	2	82-648	권영심	11	803
김광해	23	87-842	김두순	6	80-591	김순이	23	79-385
김연향	18	91-545	김영실	19	4426	김영은	15	79-370
김필자	1	85-150	김정례	2	91-311	김정숙	12	794
김경화	17	86-326	김지현	8	89-569	김학신	18	86-635
김형미	18	90-256	김희선	4	86-455	남영순	4	89-920
노명순	21	82-454	마현미	15	86-325	문현옥	17	379
민경순	24	97-542	박명란	16	82-794	박복숙	12	91-685
박정인	12	81-179	배영순	21	97-311	백나희	10	95-321
백예순	14	86-376	백정숙	17	82-128	서덕순	21	86-405
손영숙	12	95-143	송정순	12	2852	안중남	3	96-1113
오준분	9	85-514	윤숙상	14	93-440	이강해	8	91-629
이명근	2	85-606	이명희	22	79-443	이명옥	3	87-331
이명재	8	89-230	이명희	3	89-840	이봉선	4	94-280
이순기	7	91-52	이연숙	16	94-1111	이연화	24	4230
이영순	20	4470	이인숙	10	94-1039	임명희	14	93-1022
임복례	5	89-688	임창순	23	4946	임태수	4	2003-0066
임현숙	4	89-1229	임홍숙	22	85-678	장인복	22	84-383
장해남	22	94-262	장화숙	7	80-230	전순영	19	4255
전은실	18	81-552	장신숙	9	98-767	장옥련	12	92-61
조인숙	15	92-415	지아연	16	1980	채명혜	8	86-383
최숙자	6	97-627	최영옥	24	95-1030	최옥숙	21	81-654
함명연	24	99-1155	홍명희	24	92-1743			

(좌에서 우로 이름순)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은총의 땅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루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불같이 뚫 뿔터뜨려 놓으신 듯한 이 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과 열곡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매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색이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맑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알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주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아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왕귀족'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신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제의 외식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불같이 주소서!

*한우드(Hanwoode, J. Underwood, 1859-1916, 한국 조지)의 글입니다.

71~75세의 성도님들, 장년4부로 오십시오!

주일 오후 3시 10분, 베다니홀

2008년도 조직 및 임금이 새롭게 확정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실천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특히 신설된 '장년4부'는 '장년3부'와
'소망부'를 복음으로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임금들은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이분들이 은퇴 후에 5년 동안 복음으로 더욱
훈련받아 십자가를 전하도록 돕는데 장년4부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
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9)
현재 소망부에 출석 중인 분을 제외한 만 71세부터 75세의 성도는 반드시
장년4부 집회에 오셔서 복음으로 훈련받아, 복음 전도와 믿음의 교제
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년3부에 출석 중인 만 71~75세의 성도님
들은 장년4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
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58	배리	25	외선부	김영주(6)	1674	김진아	10	고등부	최진영(10)
1659	조홍	25	외선부	정환영(6)	1675	김선영	6	청년1부	김경희(23)
1660	유지혜	2	대학부	강국희(1)	1676	강성일	14	청년1부	김태영(24)
1661	이수현	8	고등부	한상현(6)	1677	김종은	16	청년2부	김신귀(1)
1662	이주영	8	고등부	한상현(8)	1678	김리라	16	청년2부	김신귀(1)
1663	양성식	18	청년3부	김영옥(18)	1679	강호성	1	교역자	
1664	국희정	6	고등부	윤자옥(6)	1680	박은영	1	청년2부	
1665	윤경숙	5	청년2부	변금순(22)	1681	정재은	4	청년2부	
1666	이귀국	12	청년2부	이시은(16)	1682	강현철	1	교역자	
1667	이윤희	14	대학부	이윤희(15)	1683	조희정	1	청년2부	
1668	김미영	18	청년2부	수순옥(18)	1684	김태훈	4	청년2부	
1669	신혜조	19	청년1부	채임숙(16)	1685	김계경	2	청년1부	
1670	김영재	21	중등3부	김봉환(21)	1686	장정화	13	청년2부	
1671	김영훈	21	중등2부	김봉환(21)	1687	지신아	9	청년1부	고진순(18)
1672	홍종삼	25	외선부	이향선(15)	1688	권효영	17	청년1부	이상범(22)
1673	이재옥	19	청년1부	구현섭(1)	1689	김민미	22	청년1부	강승연(1)

* 추천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00

장 소 : 베다니
사회 임원

10월 충현 기도의 창

2호

찬양위원회 소속 전 찬양대 11월 11일(주일) 10:00~16:30

◆CMTC 선교훈련

시 간	
-----	--

*훈련 당일 오후 3시부터 갈릴리호 입구에서 수강신청

◆CMTC 직무훈련 : 11월 24일(토), 09:00~12:00

예배담당 안내 (10/31~11/4)

규 목사	양태선	김영은
------	-----	-----

기독교 진회 안내 (☎ 031-766-5425)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	----	----	--

2부	오후 12:15	제2교
----	----------	-----

10월 충현 기도의 창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모사 김 선 과

[illegible]

■ 부록시			
박민기 12.20	류병희 12.20	여국근 12.20	안창덕 12.20
장훈 12.20	이현덕 12.20	이희하 12.20	정진호 12.20
김종현 12.20	안치원 12.20	장중신 12.20	유충철 12.20
최승규 12.20	이재영 12.20	김준호 12.20	이성진 12.20
황진성 12.20	유재진 12.20	전원희 12.20	윤수일 12.20
양철선 12.20	유성태 12.20	유현정 12.20	박정현 12.20
최희정 12.20	최강진 12.20	박용현 12.20	강원철 12.20
강지성 12.20			이광원 12.20
■ 강연도시			
윤진식 12.20	강연익 12.20	홍순애 12.20	김말자 12.20
김경연 12.20	강덕필 12.20	최태원 12.20	전은희 12.20
김경희 12.20	이복순 12.20	류진희 12.20	한성일 12.20
김영호 12.20	옥미자 12.20	이복순 12.20	강종호 12.20
이재호 12.20	황만관 12.20	김정운 12.20	정병희 12.20
■ 전일감독 사건순			
전일환자 12.20	강연익 12.20		
전일환자 12.20	강연익 12.20		
신 고 사 12.20	유호원 12.20		